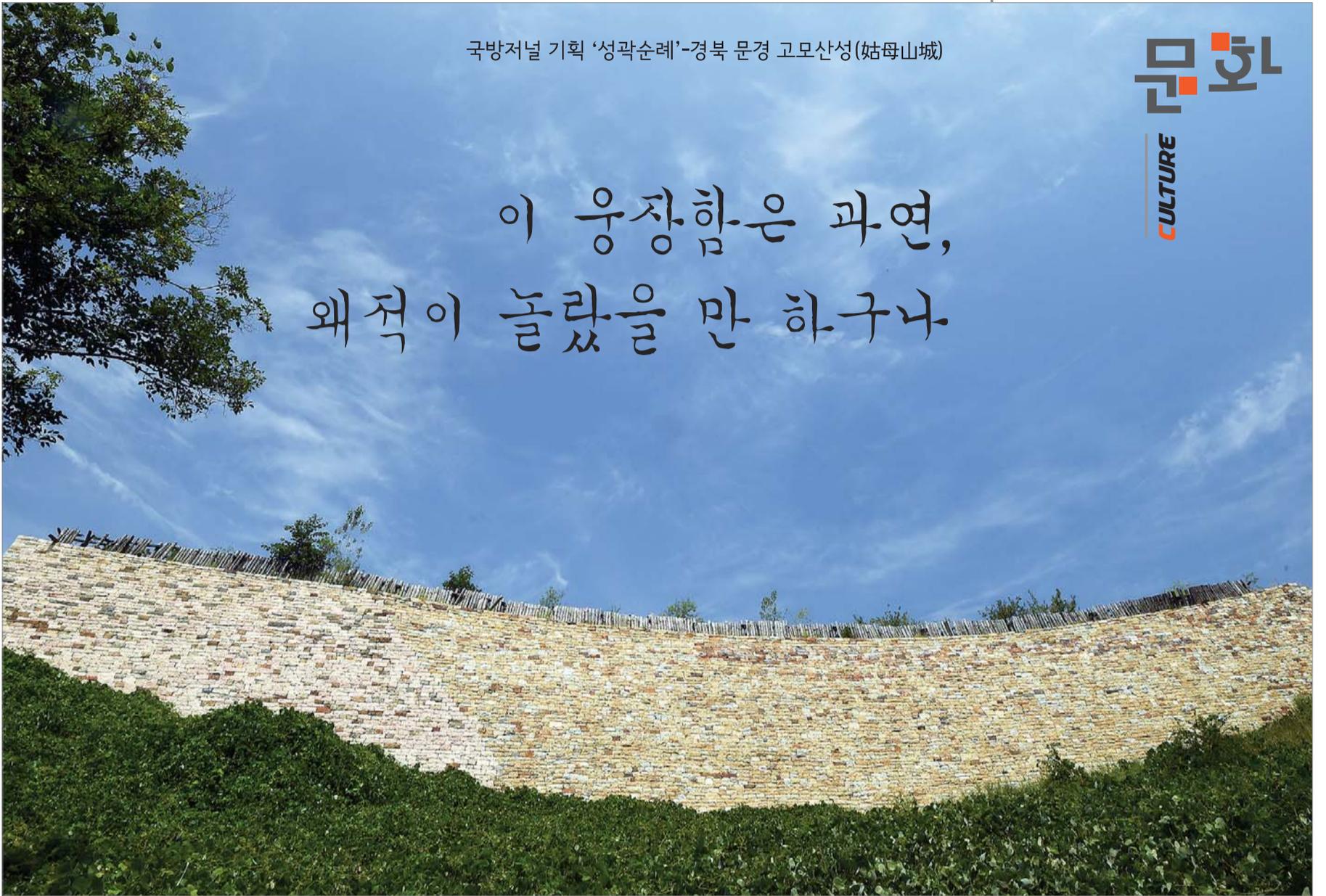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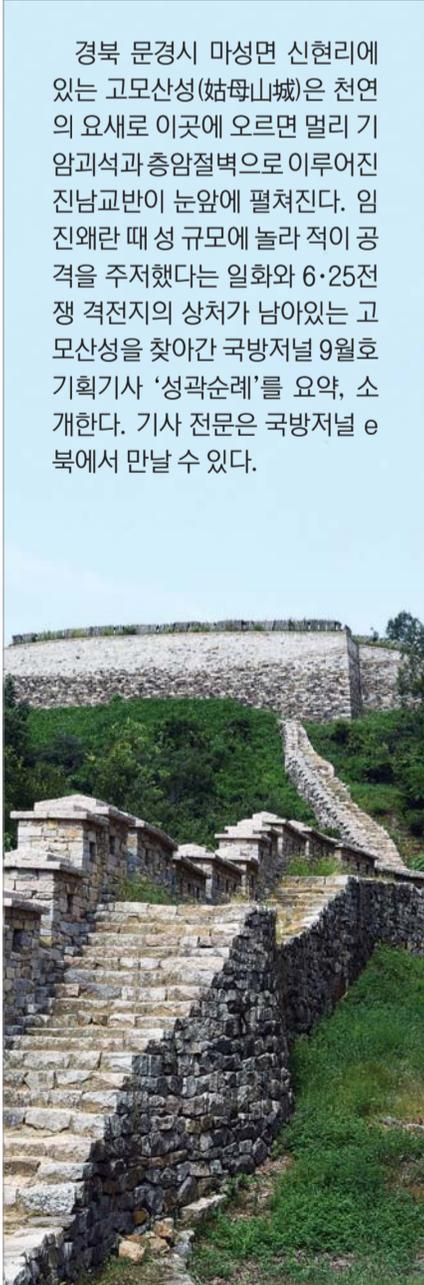


국방저널 기획 '성곽순례'-경북 문경 고모산성(姑母山城)

이 웅장함은 과연, 왜적이 놀랐을 만 하구나



높고 넓은 성벽을 갖춘 천혜의 요새 고모산성.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에 있는 고모산성(姑母山城)은 천연의 요새로 이곳에 오르면 멀리 기암괴석과 층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진남교반이 눈앞에 펼쳐진다. 임진왜란 때 성 규모에 놀라 적이 공격을 주저했다는 일화와 6·25전쟁 격전지의 상처가 남아있는 고모산성을 찾아가는 국방저널 9월호 기획기사 '성곽순례'를 요약, 소개한다. 기사 전문은 국방저널 e 북에서 만날 수 있다.

북쪽의 적 침입 막기 위해 축성

고모산성은 고모산(姑母山) 산줄기를 따라 축조한 '포곡식' 석축 산성으로 장방형인 본성은 길이가 1270m, 옆으로 뻗어 나온 익성(翼城)은 390m로 총 1646m에 달한다. 처음 축조된 시기는 삼국시대 초기인 2세기 말경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할미성'으로도 불리는 이 성은 높이가 낮은 곳은 불과 1m, 높은 곳은 11m가 넘는다. 성의 폭은 신라 시대의 독특한 축성 형태를 보여주듯 4~7m로 매우 넓다. 현재 고모산성에는 동·서·남·북문지와 익성인 석현성의 문루인 진남문, 그리고 서문지 쪽의 배수구, 동쪽의 암문 1개, 최근 복원된 주막거리, 2007년 명승 제31호로 지정된 토끼비리 옛길이 남아있다.

투석전에 사용된 남문지의 몽돌무지



남문지 옆에 쌓여있는 투석용 몽돌무지. 손에 들기 적당한 크기의 돌은 삼국시대 산성전투의 투석전에 사용됐다.

고모산성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곳은 산성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서문지다. 진남휴게소에서 산성으로 오르는 소로에 있는데

복원되지 않은 데다 수풀이 우거져 일부러 찾기 전에는 만나보기가 쉽지 않다.

반면 복원이 잘된 남문지에 오르면 익성의 진남루와 함께 멋진 풍광이 펼쳐진다. 남문은 길이 16m, 너비 5~5.8m로 요(凹)자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먹 크기의 돌을 쌓아놓던 투석용 몽돌 무지가 발견됐다. 삼국시대 산성 전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투 무기인 돌을 인근 영강 주변에서 채집했던 것으로 보인다.

적의 화살 막고 재활용에 도움 준 '목책'



남문지와 서문지 사이의 성벽에 오르면 목책 너머로 멋진 경치의 진남교반이 한눈에 들어온다.

남문지에서 서문지 쪽으로 가다 보면 복원된 성벽 위로 목책이 보인다. 목책은 적의 화살을 막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박힌 화살을 재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문지에서는 활처럼 이어진 성벽을 따라 익성인 석현성의 진남문으로 내려갈 수 있다.

석현성의 정확한 축조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고모산성과 다른 축성 형태로 볼 때 그 이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모습은 당시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조선 시대 산성과 비슷한 형태로 복원했다고 한다. 동문

지는 아직 복원이 안 된 상태고 북문지는 흔적만 남아있다.

남쪽지역서 신라고분 수십기 발굴



복원된 주막거리 모습.

고모산성 남쪽 지역에는 크고 작은 신라 고분 수십기가 자리 잡고 있다. 발굴 결과 금동제 귀걸이와 화살촉·손칼 등 금속 유물과 굽다리 접시, 향아리 등 각종 유물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고분 축조 연대가 6세기경 신라가 문경 지역에 진출한 이후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산성 주변에는 진남문에서 오정산과 영강으로 이어지는 산 경사면에 있는 '토끼비리'가 유명하다. 고려 태조 왕건이 남쪽으로 진군하다 길이 없어져 난감해질 때 토끼가 벼랑을 따라 달아나면서 길을 열었다고 전해져 '토천잔도'라고도 불린다. 돌벼랑에 난 길인 만큼 좁고 험하지만, 길에서 내려다보이는 영강과 절벽은 한 폭의 그림 같다. 이 길을 지나면 성곽이 이어지고 당시 고개를 넘느라 힘들었을 사람들의 심신을 달래줬던 진남문 뒤편의 주막거리가 복원돼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글=조진섭/사진=이경원 기자

■ 편집=김주연 기자